



# 간접흡연

## 그 피해도 심각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부끄러운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흡연율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한해동안 암에 걸려 숨진 사람 가운데 폐암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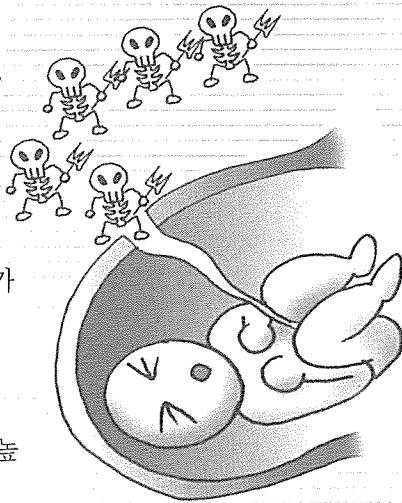
지난해 사망 원인별 통계조사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폐암이 24.4명으로 암 사망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폐암의 주원인이 흡연이라는 사실은 이미 1950년대에 의학적으로 확인됐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모든 의학교과서에도 한결같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962년에는 영국 정부에서, 1964년에는 미국 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공인 발표한 바 있다.

담배는 중독성 물질로 4천 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40여 종이 독성 발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68%로 세계에서 제일 높고 흡연자수는 천 2백여 만 명이나 된다.

폐암과 구강암, 후두암 등 흡연과 관련된 각종 질병으로 숨지는 사망자



수만도 3배나 더 많은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과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만도 무려 6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발표한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규명한 역학적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흡연하는 사람은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4배에서 12배가 된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는 오래 피울수록, 많이 피울수록, 깊이 들이쉬는 사람일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는 독성이 강해서 옆에 있는 비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간접흡연의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흡연을 하는 남편의 부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0%이상 높고 흡연자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감기와 폐렴, 중이염에 훨씬 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심각한 흡연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정부가 드디어 강력한 금연

**담배는 독성이 강해 옆에 있는 비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간접흡연의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흡연자의 부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0%이상 높고 아이들은 감기와 폐렴, 중이염에 훨씬 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을 내놓았다.

2002년 하반기부터는 중앙정부청사와 보육시설,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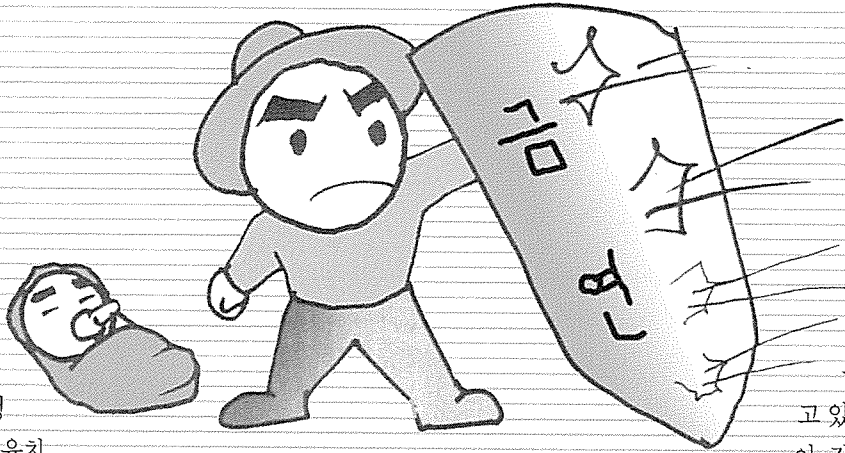
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이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담배자판기의 추가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업소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이 같은 금연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금연대책에 맞추어 금연운동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장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금호그룹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삼성코닝에서도 전사원이 자발적



으로 금연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금연운

동 때문에 이제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기도 어려워졌다.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마치 왕따돌림을 당한 듯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만큼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의 대세가 되고 있다.

금연은 선진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객연자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흡연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식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흡연을 세계 제일의 나라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77

**정부가 이 같은 금연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번 금연대책에 맞추어 금연운동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장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 광 호 KBS 해설위원